

# 4차 산업시대 맞춰 역할·비전 등 재점검해야

## 민선 7기 문화재단 이대로 가도 되나

민선 7기 문화정책 이대로 가도 좋은가. 지난 21일 광주문화재단이 발표한 2019 '경영상과 창출계획 보고서'가 역설적으로 재단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불러일으키며 민선 7기 문화정책에 대한 의문을 제공하고 있다.

문화재단은 이날 '임을 위한 행진곡 창작 뮤지컬 제작' 등을 주 내용으로 한 '문화시민' '문화일터' '문화볼컬' '문화콘텐츠' 등을 올 주요사업으로 발표했다.

문화재단은 민선 7기 문화비전과 정책을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기관으로 시 문화정책의 방향과 철학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그러나 민선 7기를 상징할만한 차별성 있는 정책이 없을 뿐 아니라 지역 예술인 육성 부재 등 그동안 제기된 문제점을 고스란히 드러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재단 사업 중 가장 큰 국제사업은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사업의 경우 예년 행사를 연장하는 선에 그치고 있어 시가 표방한 문화경제와 궤를 같이 하지 못하고 있다. 지금껏 재단은 미디어아트는 미술포럼에 한정된 교육용 쇼케이스를 중심으로 운영해 시대변화와 흐름에 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미디어아트 창의도시의 IT 등 첨단 과학기술과 연계해 4차산업 전진기지로 부상하는 세계적 흐름과도 동떨어져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또 프린지 등 지역 대형 예술축제를 지역 예술인들에게 위탁하지 않고 재단이 직접 수행하는 과오를 올해도 계속해 나갈 전망이다.

재단은 15억 규모 프린지페스티벌을 비롯해 ACC프린지인턴셔널(5억), 미디어아트페스티벌(2억), 정음성음악제(3억7천),

## 수년째 논란 프린지 등 공연행사 직접 수행 여전 유일 국제사업 미디어아트창의도시 비전도 없어 예술인 일자리 창출·역량강화 새로운 접근 필요 '임 위한 행진곡' 40주년 뮤지컬화 의미 불분명 브랜드 공연 육성차원, 문예회관과 일원화 논의돼야

아시아문화포럼(1억5천) 등을 직접 운영하고 있다.

이같은 예술행사 직접 집행은 그동안 문화계에서 "재단이 지역 예술인들을 도와주지 않는 것만 같아 울컥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던 사안들이지만 민선 7기 들어서도 계속되고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해 재단관계자는 "일부는 민간에 위탁했으나 민간이 수행을 포기해 재단이 맡은 경우도 많다"고 해명했다.

지역문화교류충남재단 이기훈 상임이사는 "문화재단이 지역 문화예술 사업을 직접 하는 구조는 매우 위험하다"며 "동반성정해야 할 예술인들을 홀세우게 만들어 지역 문화정책이 비판의 무풍지대로 전락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지역 예술인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는 일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 이사는 "사업방식을 개선하는 일 못지

않게 재단의 지역 예술인에 대한 태도나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욱이 재단은 이같은 대규모 예술행사를 통해 발생하는 운영진을 일자리 창출이라고 홍보하고 있다. 재단이 발표한 일자리 720명은 프린지페스티벌 등 이들 예술축제가 대부분이다.

또 재단이 아시안게 발표한 '임을 위한 행진곡'의 창작 뮤지컬화는 장기적으로 브랜드공연 육성 차원에서 문화예술회관과의 논의가 진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재단은 임종윤 전 처장을 중심으로 임을 위한 행진곡의 전국화 세계화를 추진해왔다. 지난해 창작 관련악곡(8곡) 제작 및 공연(6회)을 해온데 이어 올 5월에는 창작 관련악곡 공연·창작뮤지컬을 제작하고 오는 12월 쇼케이스를 거쳐 내년 40주기는 기념공연을 하겠다는 전략이다.

이에 대해서도 '사람중심의 임추진'은 한계가 있을만큼 기관역할 중심으로 통합조정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유일한 국제행사인 미디어아트 창의도시도 광주시가 표방한 '문화경제'와는 거리가 멀다.

재단은 홀로그래프 공연 작품수를 늘리고 체험과 전시 숫자를 늘리는데 초점을 맞춰 여전히 방향성을 못잡은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는 이유다.

한편 재단은 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맞춰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광주프린지페스티벌'과 연계, '미디어아트페스티벌' 연계 미디어아트월과 작품을 선수촌 일대에 설치해 참가자 및 관람객들을 특별한 미디어아트 세계로 초대한다.

특히 전통문화관이 특별기획 프로그램으로 야간개장 프로그램을 마련, 눈길을 끈다.

문화재단 선재규정책기획실장은 "그동안 예술인복지재단과 연계해 예술인 복지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나름 다양한 노력을 해왔다"며 "예술인이 살고 싶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 반달이·항아리·회화...전통과 현대의 만남

## 광주문예회관, 3월 24일까지 '목가구와 달항아리' 전 김생수 소목장·김기현 도예가·오관진 작가 등 작품 선봬



김생수 작 '강원도 반달이'

우리 조상들의 문화적 깊이와 미감이 반영된 전통 목가구와 한국적 아름다움을 대 표하는 달항아리의 가치를 눈으로 직접 보고 만끽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다.

광주문화예술회관은 '황금돼지 해' 기해년 새해 첫 전시로 오는 3월 24일까지 '목가구와 달항아리' 전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에서는 지역 전통 목가구 명인인 김생수 소목장과 도예가 김기현, 현대 미술작가 오관진, 장응림, 조문현의 달항아리를 소재로 한 회화작품이 선보인다.

담양군 향토무형문화유산 제3호로 전통 목가구의 맥을 이어가고 있는 김 소목장은 목가구의 단아한 조형미를 보여준다.

이번 전시에서는 옛 선조들의 문화적 깊이와 삶의 가치를 느낄 수 있는 반달이, 의결이장, 사방탁자, 경상, 소반, 궤 등을 내놓는다.

김 도예가는 달항아리의 상하부분을 따로 만든 후 두 부분을 접합시켜 이어 붙이는 전통 기법을 통해 조선시대 백자 달항아리의 아름다움을 재현한다.

달항아리가 뿔어내는 생명력에 집중하는 오 작가는 달항아리에 담긴 아름다움을 정교하고 사실적으로 묘사한다.

도자기의 가느다란 균열을 날카롭고 섬세하게 표현함과 동시에 도예기법 중의 하나인 삼강기법을 차용해 입체감과 밀도

감을 더하고 있다.

장 작가는 보름달이 연상되는 달항아리 안에 새하얀 목화솜을 그려 넣는다. '어머니의 사랑'이라는 목화의 꽃말처럼 화면 전체에 감도는 특유의 온기는 어머니의 품갈이 관람객을 더없이 포근하게 감싸안는다.

조 작가는 서정적인 산수풍경과 순백색 달항아리를 통해 무위자연의 순수성을 표현한다. 작품 속의 산과 바다, 나뭇배와 사공, 작은 기와집과 아내 등 자연의 자연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드러남과 동시에 자연의 순환, 그리고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인간의 삶을 이야기 한다.

전통 목가구와 달항아리는 시선을 사로잡는 화려함은 없지만 단아한 기품과 깊이감이 느껴진다. 장인의 끊임없는 노력과 오랜 세월 동안 쌓아온 기술력, 간결한 철학이 있기 때문이다.

성현출 관장은 "이번 전시는 전통 목가구와 백자 달항아리, 달항아리를 소재로 한 회화 작품을 한 자리서 만날 수 있는 문예회관 새해 첫 전시"라며 "그동안 잊고 있었던 한국의 미와 정신을 다시금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관람시간은 10:30~19:30이며, 관람료는 무료다. 문의는 062-613-8357.

김옥경기자 okkim@srb.co.kr

# "광주예술인 복지 향상 주력"

## 임원식 제10대 광주예총 회장 취임

"광주예총이 추진하는 아트페스티벌을 광주 대표 브랜드 공연으로 육성하고, '광주예술인 복지카드' 발급 등 지역 예술인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정책을 펼쳐 광주가 명품 문화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한국예총 광주시연합회는 22일 오전 서구 농성동 라페스타 2층 카베라홀에서 이용섭 광주시장과 장재성 광주시의회 부의장, 천정배·최경환·송갑석 국회의원, 지역 예술인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예총 제 9·10대 회장 임·취임식을 가졌다.

이 자리서 제10대 회장으로 공식 취임한 임 회장은 "제 10대 광주예총의 가장 큰 목표는 예술인이 존경받는 사회를 만들고 문화예술의 가치를 실현해 문화분야에 확장을 시켜 나가는 일이다"며 "광주예총의 새 선장으로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를 위해 그는 "광주예총이 대내외적으로 획기적인 성장을 이뤄야 한다"며 "광주예총 산하 10개 협회가 서로 어깨를 맞대고 화합·협력해 나갈 수 있도록 소통과 화합의 기틀을 다져나가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또 "공연과 전시도 예술인과 시민이 같은 동선에 있을 때 빛을 발한다"며 "예총에서 실시하는 아트페스티벌을 명실공히 광주를 대표할 수 있는 브랜드공



연으로 육성해 나가겠다"고 피력했다.

그는 특히 "동구 예술의 거리에 200석 규모의 공연장을 건립해 미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장르의 전시와 공연이던 중 이뤄지는 진정한 광주예술로 만들기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임 회장은 지역 예술인들의 복지향상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그는 "열악한 환경에서 창작에 몰두하는 예술인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다양한 혜택을 지원하기 위해 광주시 등과 협의해 지역 예술인을 위한 '광주예술인 복지카드' 발급을 적극 추진해 나가는 한편, 예술인 자녀를 지원하기 위한 '광주예총 장학재단'도 이르면 시간 안에 설립하겠다"고 다짐했다.

김옥경기자 okkim@srb.co.kr

# 사진 앵글에 담긴 전통문화의 의미 찾는다

## '오상조-설화의 풍경' 전 오는 3월 2일부터 시립미술관

지역의 민속과 설화 등 전통문화를 사진으로 담아 유·무형 문화유산의 가치와 의미를 느낄 수 있는 사진전시회가 열려 눈길을 끌고 있다.

광주시립미술관은 오는 3월 2일부터 5월 26일까지 '오상조-설화의 풍경' 전을 개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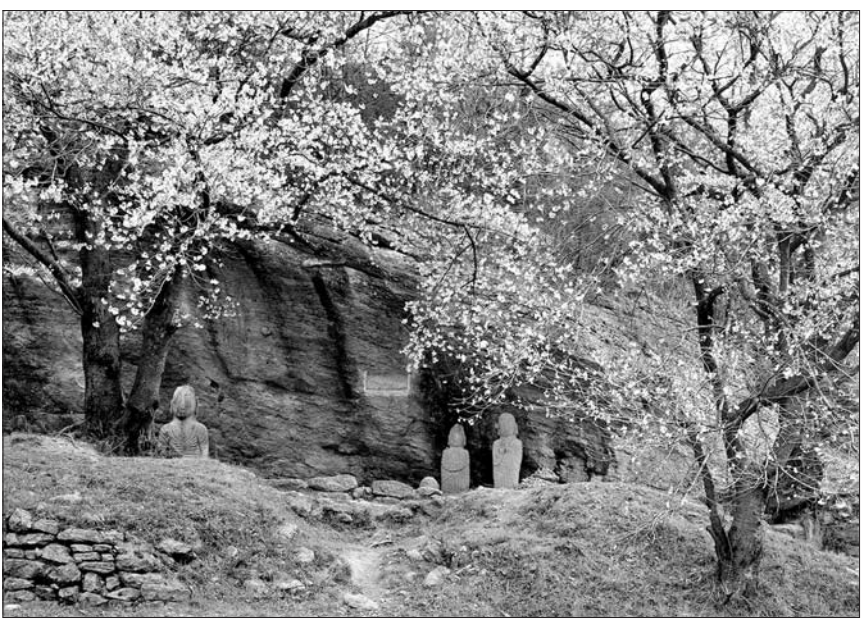
오는 3월 29일 오후 3시에는 작가가 함께 참여해 작가와의 대화의 장이 펼쳐진다.

이번 전시는 40여 년간 한국의 역사와 문화가 있는 풍경을 사진으로 기록하는 외길을 걸으면서 사진교육과 지역 사진예술 발전에 헌신하는 사진가 오상조의 작업세계를 조명하는 전시다.

오 작가는 지난 1981년 '오상조 사진연구소 개관기념전'을 시작으로 전시와 사진 집 출간을 40여년 꾸준히 해오고 있다.

사진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1980년대, 그는 전주대 박물관의 요청으로 1983년과 1984년 2년간에 걸쳐 전북 지역에 산재해있는 문화재를 촬영했으며, 그 작업을 계기로 우리 문화유산에 관심을 더욱 갖고 문화재 기록사진 작업을 지속해 왔다.

특히 지난 1984년 광주대 부임으로 광주



오상조 작 '벚꽃 속의 석불 군상'

에 근거지가 마련되면서 남도지역을 가까이서 만나게 된 것을 큰 행운으로 생각한다. 40여년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는 동안 유형과 무형의 문화유산의 원형은 삶의 문제이고, 사람을 살리는 땅과 직결되고 있음을 깨달았고, 관심으로 시작된 전통문화의 기록작업은 세월이 흐를수록 책임과 확신으로 자리 잡았다.

그 작업관은 학생을 교육에도 반영했고, 1997년부터 광주대 사진영상학과 학생들

과 함께 지역별 다큐멘터리 사진을 찍고 사진집으로 출간하는 프로젝트도 다년간 진행했다.

이번 전시는 오 작가의 중요한 주제로 대별되는 '운수사', '당산나무', '남도 사람들' 시리즈로 압축하고, 각 시리즈의 대표작품으로 구성했다. 특히 '남도 사람들' 시리즈 작품은 사진집으로는 출판했지만 전시장에서 전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옥경기자 okkim@srb.co.kr

## '월요콘서트' 출연단체 모집

### 광주문화재단, 클래식 17개팀 선발

광주문화재단은 25일부터 28일까지 '월요콘서트'에 참여할 클래식 전문 연주단체를 모집한다.

월요콘서트는 매주 월요일 빛고을시민문화관 아트스페이스 소공연장에서 이뤄지며 올해는 클래식으로 차별화된 무대를 만들기 위해 바로크 음악을 집중 공연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4월 15일부터 11월 4일까지(휴가철·하절기 7, 8월 제외) 매주 월요일 총 20회의 공연이 진행된다.

광주문화재단은 이번 공모를 통해 재단 자체 기획공연 3회를 제외한 17개 공연팀을 선정한다. 선정된 공연팀에게는 출연료 150만 원, 공연장 및 부대시설 지원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최종 선정 단체는 다음 달 8일 광주문화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다. 문의 062-670-7943. 유대영기자 ydy2132@srb.co.kr



# 바이올리니스트의 대모가 장식하는 무대

## 김남윤과 '코리안 솔로이스츠' 27일 올 첫 'ACC 브런치 콘서트' 출연

올 첫 'ACC 브런치 콘서트'가 '한국바이올리니스트의 대모' 김남윤(사진) 코리안솔로이스츠 예술감독의 무대로 꾸며진다.

오는 27일 오전 11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극장2에서 브런치 콘서트 첫번째 이야기, '코리안 솔로이스츠 김남윤 감독의 해설이 있는 올 댓 챔버'의 무대가 마련된다.

김감독은 1974년 스위스 티보바가 국제콩쿠르 우승으로 명성을 떨치며 세계적인바이올리니스트로서 자리매김했다. 이후 수많은 국내·외 정상급 교향악단과의 협연으로 뛰어난 음악성과 탁월한 연주력을 인정받았다.

뉴욕 카네기홀, 링컨 센터의 알리스틀리홀, 워싱턴의 케네디 센터,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 동경 아미하홀 등에서의 독주회로 세계무대에서 청중과 비평가들의 격찬을 받은 후 1977년부터 교육자로의 길을 걸었다.

김감독은 경희대와 서울대 교수를 거쳐 한예종 교수를 재직하며 수많은 바이올리니스트들을 키워냈다.

바이올리니스트 권혁주, 신아라·신현수 자매, 강주미, 정유진 등 김 감독이 키워낸 제자들은 세계 유수 콩쿠르에서 발군의 성적을 거두며 스승의 실력을 다시 한번 입증

하기도 했다.

이번 공연에는 김선희·김하영·박수빈·김원혜·한규현·김지운·김혜지·박지훈(바이올린), 정승원·황여진·최희람(비올라), 임재성·박기홍(첼로), 김두영(더블베이스)가 출연한다.

노르웨이 작곡가 할보르센이 헨델의 '하프시코드를 위한 파사칼리아'를 현악으로 편곡한 곡으로 무대의 포문을 연다. 이어 코리안 솔로이스츠 특유의 세련되고 정교한 연주로 바흐의 '브란덴부르크 협주곡 3번 사조작품 1048'을 무대에 올리고 비발디 '사계'를 선보인다.

공연을 이끌어갈 코리안 솔로이스츠는 바이올리니스트 김감독을 중심으로 1998년 창단됐다. 1999년 12월 상하이 뮤직 페스티벌은 물론 2000년 6월에는 청주, 부산, 마산, 순천, 광주 등 5개 도시 지방 순회 연주 등 국내·외에서 활발한 활동을 했다.

만 7세 이상 입장 가능. 일반석 2만5천 원·사이드석 1만 원. 문의 1899-5566. 유대영기자 ydy2132@srb.co.kr